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인의 정신과 몸 에 대한  
회화 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수 민

현대인의 정신과 몸에 대한  
회화 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수 민

# 인 준 서

김수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위 논문은 2018년 'BOUNDARY'란 제목의 석사학위 청구 전시를 통해 발표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된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인의 정신과 몸에 대한 인식을 논구하면서 예술적 삶이 주는 의미와 개인의 개별성과 삶의 주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개별성과 주체성이 상실됨이 개인 혹은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작품을 통해 드러내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인의 작품연구논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삶의 주도권을 잃어 효율성과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정신과 몸이 상품처럼 표준화, 도식화 되었다. 인간 존재 자체를 하나의 척도 안에 획일화함으로써 개인의 개별성과 삶의 주체성이 무시되어 오고 있다. 그로 인해 현대인은 자아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고 살아간다.

본인은 개인의 고유한 영혼과 육체가 개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를 도구나 사물로 인지했다. 그리고 도구화된 인간이 삶과 일상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또한 신체와 정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고 주체성을 상실한다면 자기 인식이나 표출과정이 사라져 인간의 자유와 실존의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한다.

본 연구는 현대에서 인간의 심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도구로써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개인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잃고 지배당했을 때의 감정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개별성과 주체성의 상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던 작품들에 대해 분석 서술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현대사회와 예술 .....	3
2. 주체성에 대한 사유 .....	6
3. 본인 작품 분석 .....	8
1) 주체성의 상실에 대한 표현 .....	10
2) 표준화된 일상과 개별성의 상실 .....	16
① 선(線) .....	17
② 경계(boundary) .....	28
III. 결론 .....	3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두통, 53x3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	10
【작품2】 두통, 53x3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	11
【작품3】 무제, 97x13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13
【작품4】 표류, 72x5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14
【작품5】 무제, 72x61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19
【작품6】 회의, 194x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21
【작품7】 몸, 135x72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24
【작품8】 무제, 100x8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26
【작품9】 키스, 45x3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29
【작품10】 모래바람, 40.9x31.8cm, 순지에 혼합재료, 2018 .....	31
【작품11】 부화, 39x39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	32
【도판1】 헨리 드레이퍼스 『Measure of Man and Woman: Human Factors in Design』의 표지 .....	18

## I. 서론

예술의 근본정신은 ‘자유’에 있다. 예술의 자유정신은 창작과정에서 구현되는데, 주체가 아무런 구속 없이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이러한 예술적 표출과정은 개인이 의식하고 해석하는 내면적 공간에서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이야기를 만들어 자기 성찰과 탐구를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한다.

본인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유로움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꼈다. 질서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를 창작하는 과정은 나만의 감성과 고유한 기질을 펼치면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예술적 정신과 가치를 가지며 사회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현 사회는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척도 안에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선별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 고유한 능력과 주체적인 힘을 중요시하지 않고 정해진 규범이나 질서에 순응하며 피동적인 자세를 가지길 강요한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현대인은 억압과 순종에 길들어 자신만의 해안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와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체성과 개별성의 상실되었을 때 인간의 정신과 몸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삶과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본인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본론 1장에서는 인간이 단순한 목적과 도구로서 전락하면서 야기된 개별성의 문제와 예술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밝힌다. 본론 2장에서는 정신과 몸의 주체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본론 3장에서는 본인이 앞서 언급했던 주체성과 개별성이 상실되었을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과 결과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음을 설명하고, 주체성의 상실에서는 행위나 행동, 색감, 재료가 가지는 성질을 인물들의 상태나 상황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일상과 개별성의 상실에서는 선과 경계라는 두 가지 주체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본인의 작품에서 선이 주는 의미와 표현을 통하여 표준화된 일상 속 개별성의 상실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 번째로는 경계에 대해 정의하고 본인작품과의 관련성을 검토 해보고, 일상적인 삶에서 개별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경계가 필요함을 서술하려고 한다.

## II. 본 론

### 1. 현대사회와 예술

일상에서 예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술가가 아닌 이상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예술적 삶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싯적 예술적 삶을 살았다.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무아지경으로 낙서로 그려내고 흥얼거림을 통해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표현욕구는 예술가에게만 한정되지도 않으며, 예술적 삶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성을 표출하고 일상 속에서 미묘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미적 사유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기회를 놓친다. 내 표현의 징표들이 삶의 방식과 그 방식 안의 개별성을 인식하게 해주고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sup>1)</sup>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사유하는 것은 주관적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자기인식 과정을 거쳐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 그로 인해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도 자기 존재에 충만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개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아 있는느냐는 것이다.”라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말처럼 어른이

---

1)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55

되어서도 예술적 기질을 잘 형성하고 이어가는 것은 힘들다. 그 이유는 예술의 정신과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자신의 주권과 고유성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사회체제와 곳곳에 배어있는 시장체제의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며 문화도 대세나 유행에 의해 휩쓸려 독립적인 색깔을 잃어가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물건처럼 상품화, 수량화시킨다. 개인의 진실한 이야기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에 방해로 치부 받으며 어딜 가도 환영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 순수한 마음, 건강한 육체마저 획일화된 기준에 저울질 당한다.

인간이 단순한 도구로 전락되면서 개인 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사라지고 각자가 가지는 고유한 정신과 몸은 표준화, 도식화, 사물화 되어 통제 당한다. 이러한 양산을 지속하게는데 기여하는 것은 바로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는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고루한 삶의 방식에 해방됐다는 착각을 이용해 인간의 비동일적인 요소도 동일성 속에 포섭시킨다.<sup>2)</sup> 인간의 동질화는 자율성, 상상력, 비판적 사고, 자기 반성적 사고를 마비시킴으로써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이런 순종적인 태도는 삶을 무력화시켜 삶의 의미와 자율성을 잃게 한다. 그래서 개인의 개별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은 삶을 권태롭게, 경직되게 한다.

본인 작품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무시된 채 표준화·수치화되어 규제당하는 인간의 존재를 도구나 사물로 이해한다. 도구화된 인간은 사유 능력과 이성적 비판능력을 잃어 정신과 몸이 경직되면서 피동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물건처럼 타자의 존재 자체가 대체 가능해지면서 타자성이 부재함에 따라 개인의 자아 경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

2) 신혜경,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76-89 참고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일깨우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현실의 도피처 또는 상처받은 영혼과 육체의 안식처로 개인의 고유성을 지키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또한, 자율적으로 현실을 인식·비판하게 하여 생기를 잃어 굳어버린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즉, 주어진 삶을 삶답게 하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술적 인문정신을 현실적인 문제와의 대립적인 층들에서 상실하지 않고 잘 이어나가 확장하는 것에 있다.

## 2. 주체성에 대한 사유

누구나 자신 각자의 관점을 가지면서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꾸려나가길 원한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닌 내면의 시각과 세계를 가진 의식이 있는 존재이며, 내면의 의식을 가지고 주관적 가치체계 형성하여 그에 기반으로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주도 하며 산다는 것은 존엄성과 자아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삶의 주체성은 인간의 기초적인 본능적 욕구이며 누구도 한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여 존엄성과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

신체와 정신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신체를 통한 감각의 경험은 지각을 만들고 그 지각으로 의식을 형성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sup>3)</sup> 결국 신체화된 의식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끈다. 그래서 정신과 몸 들 중 하나가 결박되거나 억압된다면 인간의 자유와 실존에 문제가 생긴다.

주체적 인간이란 타인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 그저 앞만 보고 터덜터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에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보는 것이다.<sup>4)</sup>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적으로 자기 탐구와 성찰을 하면서 성숙한 주체로써 변할 수 있는 계기와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삶의 방향성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수서양단(首鼠兩端)의 태도를 보인다. 또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쉽게 흔들려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착취할 위험에 처한다.

3) 심귀연, 『신체와 자유』, 그린비출판사, 2012, pp.142-152 참고

4)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삶의 격』, 은행나무, 2014, p.25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주체성의 상실로 인한 허망하고 무력화 된 감정이 신체적으로 표현된다고 전제하였다. 인간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는 행위나 행동, 표정을 통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는 서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감정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회화작품으로 평면 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3. 본인 작품 분석

예술적인 삶의 방식은 자유롭게 내적 자아를 표현하면서 개별성을 얻고 주체성을 가지게 하여 능동적, 창의적으로 삶을 이끌게 한다. 개별성과 주체성은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삶은 개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엔 외부적인 압박과 억압이 많았다. 본인 작품의 시작은 본인의 고유한 모습이 무엇에 의해 어떻게 상실되었는지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제정되고 길들여져 본연의 모습이 사라진 채,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을 따라 하고 답습할 뿐이었다. 그동안 예술에서 배웠던 가치와 정신을 삶과 별개로 두고 사회에 나와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체성과 개별성이 상실된 채 피동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깨달았다.

사회에 나와 현실을 살아가면서 본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기보다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효율적인 생산수단이 되기 바빴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맞다고 하기에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알았다. 획일적이고 고정된 가치에 순응하며 살다가도 시대가 원하는 표준화된 기준에 벗어나거나 따르지 않으려 하는 순간 삶을 간접받거나 따르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정신이나 감성, 독창성을 점점 무디게 하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 본인의 존재가 자유의지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경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나약한 인간처럼 느껴졌다. 나중에는 본연의 힘조차도 잃어버려 자신을 자책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맞는지에 대한 확신조차 사라져 억압적인 삶

의 구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본인을 발견하고선 혼란스러웠고 무력감을 느꼈다. 다수가 원하는 삶은 본인의 잠재적인 본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정신과 육체를 구속했다. 그리하여 개별성과 주체성의 상실로 인해 겪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작품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 작업에서는 인물들을 주(主)로 등장시킴으로써 행위, 표정에서 자아 정체성이 희미해져 자기 확신과 삶의 의미를 잃어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작품의 표현에서는 인물의 형체가 일그러지거나 사라지는 표현이나 경직되고 허망한 표정의 인물을 묘사하고, 사용하는 재료 따른 색이 주는 분위기를 연구했다. 또한 직선적인 선을 표현함으로써 직각적인 요소와 수치가 주는 구속성, 인물의 수치화됨을 말하고자 하였다.

## 1) 주체성의 상실에 대한 표현

주관적 가치판단이 상실된 채 아무런 저항이나 문제의식 없이 사회적 체제의 틀과 표준화된 기준에 순응하면서 본연의 기질이나 본성을 억누르며 산다면 그것은 꼭두각시의 삶이다. 결국 타인을 모방하는 결과만 낳고 삶의 의지나 이성이 상실되어 비판의식 없이 구속하는 체제의 틀 자체에 묵종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착취하게 되어 스스로가 무력화되고 허망함을 느끼며 타인의 암시에 따라 조종당할 위험에 처한다. 주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



【작품1】 두통, 53x3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작품2】 두통, 53x3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본인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 수동적인 자세로 혼동되고 무력화된 감정으로 살아갈 당시 때 그린 그림이 【작품1】, 【작품2】 이다. 장지에 목탄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목탄이란 재료는 고착시키는 액체를 뿌려주지 않으면 그렸던 그림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성질이 있다. 목탄으로 그림을 여러 번 그린다고 하더라도 고착액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훔날려 없어지고 만다. 목탄은 어디에도 정착되지 않고 훔날려 방향성을 잃다가 고정해주는 대로 그 자리에 안착해버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졌다. 목탄의 작은 입자 가루들은 정확한 형태를 나타내기보단 애매모호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작품에 그려진 사람들 형태 또한 정확한 형태가 아닌 일그러지고 부정확한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러한 인물들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취하고 있는데, 주체성을 상실하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간접적으로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작품1】에서의 사람들은 인간의 신체 부위 가장 중요하게 담당하는 머리를 누르고 밑에 있는 사람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이다. 규제된 틀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되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작품2】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면서 자신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다.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피부색을 보면 활기나 생기가 띄는 색이 아닌 시체와도 같이 창백하며 검푸른 색을 띤다. 이런 피부 표현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순간적인 상황이나 삶이 고되고 허망함을 나타낸다. 피부표현 색감과 반대로 본인 대부분의 작품은 바탕색이 주로 여러 색이 중첩된 파스텔 톤의 차분한 색감을 띄고 있으며, 인물 외의 풍경이나 배경들이 삭제되어있다. 여러 색이 중첩된 오묘한 파스텔 색감의 바탕색은 등장하는 인물의 처한 상황과 창백한 피부색과 대조되면서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면서도 심오하게 만든다. 또한 인물이외에 배경이나 풍경이 삭제되면서 인물 동작이나 상황에 집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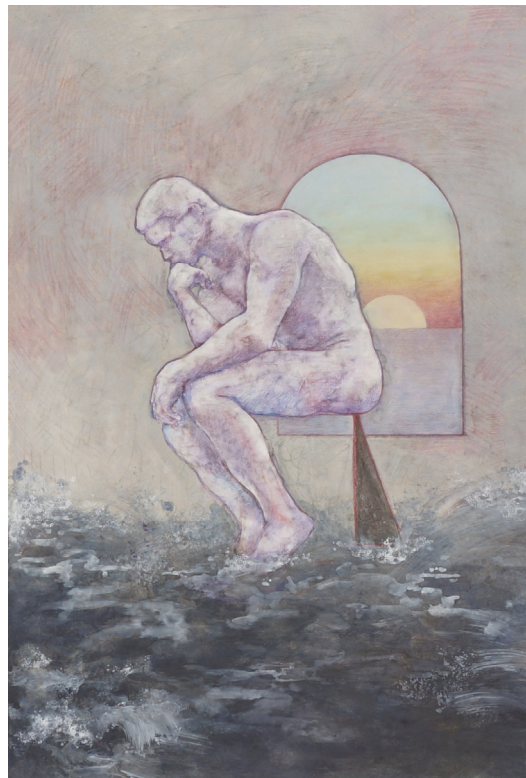


【작품3】 무제, 97x13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3】은 앞 작품과 달리 누군가에 의해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닌 건장한 남성이 혼자서 자신의 허리를 잡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동작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형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분열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몸이 창백해질 정도로 자기 착취적인 동작을 되풀이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피로운 표정이 아니라 웃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정된 남성의 성 역할은 정신적으로는 피로운 일 있어도 언제나 씩씩하게 견뎌야 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건강하길 기대한다. 그래서 작품에 보이는 남성도 주체성을 상실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육체적인 모습을 넘어 본연의 감정까지 감추고 있다. 이

는 【작품1】 , 【작품2】 에서도 여성이 아닌 긴장한 남성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성의 핏기 없는 피부색과 중첩된 오묘한 하늘색의 바탕이 갖는 냉랭한 분위기로 인물의 웃고 있는 표정과는 다르게 주체성과 이성을 상실한 채 수동적이고 기계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4】 표류, 72x5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4】에서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의 <생각하는 사람><sup>5)</sup>이 거친 파도 속에 위태로운 상태로 앉아있다. 생각하는 사람 뒤에 있는 창문 넘어 평온해 보이는 잔잔한 파도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문턱 너머로는 분명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표류하여 고립된다. 본인은

5) 조각 청동, 19세기제작, 리옹박물관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림 속 ‘생각하는 사람’처럼 항상 침착하게 사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위기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밀려오는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들이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고 항상 모든 힘든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설상가상의 상태에서는 생각이나 사유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잇따른 불행한 일의 연속에서는 이성적 판단의 효용성은 이미 상실되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그럼으로써 그림 속 공황 상태 속 놓여있는 인물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사고능력이 마비되어 무력화된 사람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인물의 생각과 판단능력은 알 수 없는 주변 상황들에 의해 표류하여 억압당한다.

인물의 상황이 더욱더 위태롭고 절망적으로 보이기 위해 창문 밖과 안의 색깔의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더불어, 인물이 갇힌 공간의 배경에 선을 복잡하게 중첩한 뒤 잿빛 색으로 덮어 인물의 상태가 사유나 고뇌가 아닌 공황 상태가 된 듯한 어지러운 상황을 나타냈다.

## 2) 표준화된 일상과 개별성의 상실

표준화된 삶을 강요받으며 자신의 고유성을 잃어버린다면 인간의 삶이 아니라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을 따라 하는 기계가 되어버린다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sup>6)</sup>의 말처럼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조련된 원숭이도 아니다.

현대사회는 대상을 지배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대상을 수량화하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각각의 대상이 가진 고유성(固有性)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비동일적인 것을 동일성 속에 포섭시킨다.<sup>7)</sup> 결국 대상들은 계산이 가능하고 존재가 된다. 이러한 성질 가지고 대량생산 체제와 대중문화는 인간의 존재를 기만하고 획일화한다. 대량생산 체제는 규격화된 물건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하고 대중문화는 미디어를 통해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정신적 노력이나 긴장도 회피하게 한다. 그 결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인간의 특수성과 개별성은 동일화된다.

결론적으로 특수성과 개별성이 무시되어 표준화된 일상 속에서 사는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아 정체성을 침해받을 위협에 처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나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마비되며, 육체적으로는 행동이 경직되고 외적인 신체 모습도 규정된 범위에 맞추며 일률적으로 같아지려 한다.

---

6)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구분되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존스튜어트밀/두산백과>>

7) 신혜경,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76

## ① 선(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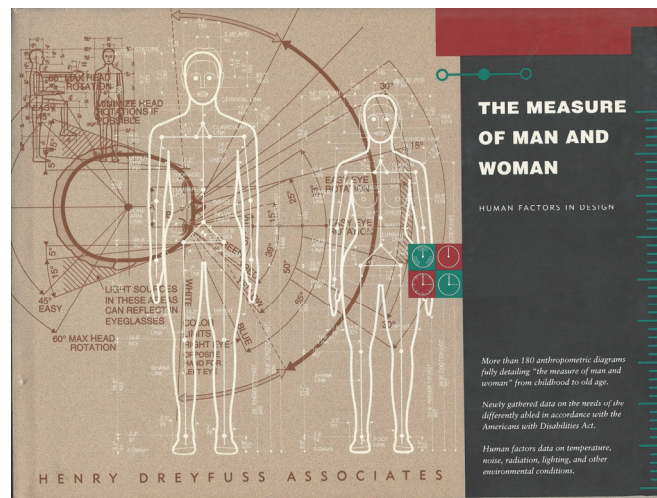
선이란 조형에서는 기본적 요소다. 본인은 주로 동양회화에서의 선의 개념을 접했다. 동양회화에서의 선은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인간의 정신성과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상징성을 가진다. 선을 긋는 사람에 따라 선이 가지는 성격이 달라져, 선에서는 한 사람의 개성과 감성이 느껴진다. 본인이 생각했던 선과는 달리 건축이나 디자인 도면에서 나오는 선들은 기본법칙에 따라 원칙적이고 형식적이었다. 동양회화에서 선은 선율이 있어 강·약을 나타내어 섬세하게 정신과 감정을 표현한다면, 도면에서의 선들은 딱딱하면서 리듬감이 없는 선들로 대부분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져 직각의 형태이다. 이러한 명료하고 단순한 직선들은 만나 경계(limit line)들이 생긴다. 경계들 안에 대상을 두고 둘러싼 선들이 폐쇄적이고 구속적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도면 속에 수치들은 대상을 규제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듯 보였다.

도면 책을 뒤져보다가 헨리 드레이퍼스(Henry Dreyfuss, 1904~1972)<sup>8)</sup>의 인체공학적 디자인관을 정리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도면을 보게 되었다. 드레이퍼스 인간공학의 도면을 보면서 평균적인 수치에 의해 한 개인의 작업 능력과 한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드레이퍼스가 표시해 놓은 수많은 선의 경계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부정하고 잠재적인 능력과 기질을 규정짓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 도안이었지만 그것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면에 그려진 인간의 모습들이 마치 예

---

8)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 뉴욕에 산업디자인 사무실을 열어 1930년대 산업디자인의 발흥기(勃興期)를 맞아,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활약했다. 드레이퍼스의 인간공학의 목표는 대중을 위한 디자인이었다. 드레이퍼스를 통해 본격화된 이 인간공학은 인간의 신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작업능력과 한계를 파악하고 작업을 생리적, 심리적인 여러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하기위해 데이터를 구축하여 갖가지 상황에 따른 인간의 신체의 모습을 분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헨리 드레이퍼스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헨리_드레이퍼스/두산백과)> 박암중, 『디자인 생각』, 안그래픽스, 2008, p.123

측 가능한 존재인 사물이나 기계인 듯 효용성에 기반을 둬으로써 인간을 사물화<sup>9)</sup>, 도구화한다. 그리고 경계선과 수치들은 최상이 아닌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인간의 개별성과 다양성은 무시당한다.



【도판1】 헨리 드레이퍼스 『Measure of Man and Woman: Human Factors in Design』의 표지

9) 루카치(György Lukács, 1885~1971)의 사물화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 노동 및 그 산물이 거꾸로 인간과 대립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결국 사물화란 인간 주체와 이 주체의 사물인 객체가 통일성을 상실하고 서로 대립되어 그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혜경,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90.



대체로 본인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감정을 잃은 무표정이다. 그리고 인물들은 개인이 대체 가능한 사물로써 평면적으로 도식화되어 그려졌다. 인물이 사물화가 됨으로써 사유하는 능력이나 반성하고 비판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해 버리고 체제나 구조에 순응적으로 변해, 인물들은 무기력하고 공허함과 동시에 절망적인 모호한 표정이다.

【작품5】을 처음에는 다른 작품들과 똑같이 인물의 배경색이 중첩된 파스텔 색감으로 칠하려고 했다. 그러나 배경색 위에 파스텔을 이용해 거칠게 밀면서 파스텔이 장지에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쌓여 거칠고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배경이 표현되었다. 그럼으로써 대상의 시야가 차단된 듯 인물의 상태가 더 잘 나타났다. 인물표현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어렵듯이 묘사하여 인간으로서의 주권성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작품6】 회의, 194x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6】 회의, 194x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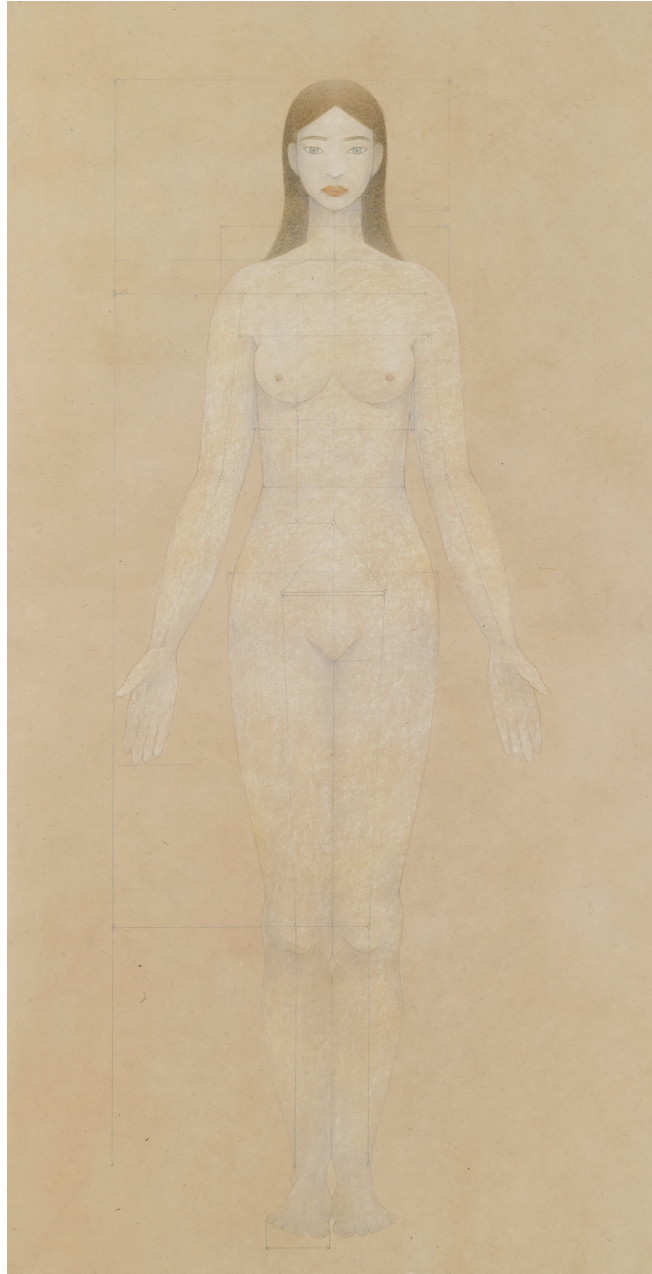
【작품6】에 그려진 선과 숫자들은 의자나 식탁을 사용할 때 인간의 신체적 행동 범위의 한계치를 평균으로 내고 수치화시켜 사물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여 만들기 위함이다. 인간의 모습과 형태가 서로 달라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녔지만 무시된 채 모든 사물의 형태는 일반적인 통용된 기준에 따라 규칙화, 수치화되어 대량생산된다. 대량생산에 의해 획일화된 사물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와 행동 범위가 제한되어 정형화된 사물에 삶의 방식을 맞추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적 제한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수치화, 표준화시켜 고유한 정신을 또한 지배하고 통제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정신과 몸은 도식화된 물건처럼 다듬어져 경직된다.

그래서 그림 속 인물들은 책상에 앉아 있거나 책상을 앉으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수치화된 선과 경계의 틀에 압도되어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태도가 기계적이고 수동적이며 보인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작품에서 배경을 제외하고 선이나 인물에게 건식재료인 색연필이나 연필을 사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감은 장지에 스며들고 중첩이 되어 부드러운 표현을 하지만 색연필은 장지에 슬며 들지 않고 쌓여 색을 넘으로써 인물을 마네킹같이 딱딱하면서 뻣뻣한 자세로 묘사하는데 용이하였다. 그리고 인물을 정확히 표현하기 보단 회미하거나 뿌옇게 표현하여 인물의 신체적인 속박을 넘어 자유로운 정신까지 억압되어 본연의 존재가 사라지듯 함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6】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명의 인물들이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물들은 타자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 화면에 공존하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타자의 의해 존재하고 타자의 통해 자신을 되돌아본다. 타자는 다른 타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 타자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규정된 범위에 개인을 맞추

며 자기 존재 자체를 진열된 상품처럼 획일적이고 균등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타자들을 매끄럽게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성이 부재한다. 타자의 소멸은 개인의 개별성을 사라지게 하고 비만한 공허함을 낳는다. 그래서 【작품6】 속 인물들의 표정은 공허하면서도 슬퍼 보인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의 옷차림새는 남자보다 형식적이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정형화된 성 역할에서는 여성은 조신해야 하며 언제나 깔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작품7】 몸, 135x72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규정되어버린 성 역할에 있어서 사회는 여성에게 더 엄격하다. 본인도 여자로서 삶을 사면서 성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조차 고정된 성 역할을 요구받고 그에 따르지 않을 시 비난 받아야만 했다.

【작품7】에서 그려진 선들은 여성 신체의 평균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표시다. 신체의 비율의 나타내는 선들이 이지만 수많은 경계선이 다수의 절대적 삶을 권유하듯 여성을 속박하고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작품에 나타난 경계들에 의해 여성을 규정지어지고 억압하기에 신체적 존엄까지 박탈당한다. 여자의 형상은 평면적이어서 마치 표본에 박제된 곤충처럼 결박되어 보인다. 결박된 인물의 신체가 희미하게 표현된 것은 인물 본연의 본성과 기질이 상실됨이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파스텔을 이용해 인물의 몸을 칠함으로써 살결 같은 마티에르를 나타냈다. 이러한 마티에르는 수치화된 선과 살결의 표현이 대조되면서 도식화된 인물은 사물이 아닌 인간임을 강조한다.



【작품8】 무제, 100x8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8】은 앞 작품들과는 반대로 그려진 선들은 얼굴의 최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평균의 경계보다 최상의 경계들은 우리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최상이 아닌 것들은 그 아래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개성과 다양성조차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자신을 완벽함에 기준을 두고 비교하고 맞추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구속하려고 한다. 그림에서 보이는 선의 비율들은 단지 얼굴의 형상만을 가두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연의 내면까지 가두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불완전하며 모두가 다른 정신과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재는 기성품처럼 매끈하거나 완벽하지 않으며, 기준 된 선 안에 맞출 수 없다.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이 출동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가 다르게 인식하고 흡수한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다수가 만들어놓은 최상의 경계에 외면(外面)에 이어서 내면(內面)까지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은 타인의 절대적 기준에 본인을 비교하며 구속하였다. 언제나 그런 구속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라는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는 건 얼

마나 슬픈 일인가. 【작품7】 과 【작품8】 의 여성의 표정에서도 보이듯 본인이 느꼈던 슬프지만 두려운 모호한 감정의 느낌을 주려 하였다. 특히 【작품8】 에서의 인물 표정은 타인을 의식한 듯 굳어져 경직된 표정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마치 판화를 뜬 듯한 선을 이용해 인물이 좀 더 가볍게 보이도록 하여 타인의 의식하여 만든 절대적 기준이 주는 의미가 하찮음을 느끼게 해준다.

## ② 경계(boundary)

앞에서 언급한 경계(limit line)와 달리, 다른 의미에서의 경계(boundary)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각자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범주는 타자와 분리된 공간이기에 독립성과 개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리된 공간의 경계는 자신과 타자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경계선은 나만의 내밀한 정체성을 보호하고 나의 선택 권리를 지켜준다.”라고 말한 시인 제라르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sup>10)</sup>의 말처럼 경계선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공간을 지켜주지만, 경계가 너무 와해하여 버린다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을 위험이 생긴다. 그러기에 서로 은밀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신중히 넘어가야 한다. 또한 자율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문턱을 지나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는 문지방 또는 문턱으로 보기도 한다. 문턱은 통과 의례로 외적인 공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한다. 통로를 넘어 다른 범주로 가는 것은 깨달음과 성숙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 두려움과 고통이 무서워 내적 공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모형과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

---

10) 19세기 영국의 시인으로 《홉킨스 시집》이 있다. 독창적으로 ‘도약률’이라는 운율법을 이용, 두운을 많이 써서 이미지와 압유의 복잡한 구성을 시도, 의미의 강력한 집중을 나타냈다. 특히 《도이칠란트호의 난파》가 유명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제라르 맨리 홉킨스](https://terms.naver.com/제라르_맨리_홉킨스)>



【작품9】 키스, 45x3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라는 범주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타인의 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다. 자신의 경계에서 타인의 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문지방을 지나야만 한다. 하지만 오늘날 타인 간의 사이에 경계는 사라지고 없다.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사회에서는 문턱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타인과 타인 간의 사이에는 서로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즉,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는 통과하기 쉬워진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가 키스로 사랑을 나누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서로 감정을 잃은 채 의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처럼 보인다. 타자 간의 차이나 경계가 없어지면서 인간은 상품처럼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타자의 소멸은 에로스의 상실을 의미한다.<sup>11)</sup> 그래서 【작품9】에서 두 사람의 그들은 키스는 나누는 주체가 어떤 타인이든 상관없이 기계적이다. 그들의 키스에는 그 어떠한 본능적이고 순수한 감정이 없다. 눈빛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키스를 나누는 모습은 사랑의 기운이 아니다. 주(主)가 된 색상들은 분명 따뜻한 색들 입에도 냉랭한 기운이 도는 듯하다. 대조적인 색상표현으로 인물의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

11)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 2015, p.80. 참고



【작품10】 모래바람, 45x38cm, 순지에 혼합재료, 2018

경계를 지나 다른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범주를 튼튼히 굳건히 하지 않으면 경계선을 지나가는 길에 휩쓸려 삶의 방향을 잃고 만다. 그림 속 여자는 거친 모래 바람을 불지만 어떠한 미동이 없이 정면으로 역경을 맞닥뜨리고 있다. 여자는 내부의 영역을 넘어 또 다른 세계로 나가 성숙한 자아로 발전하기 하기 위한 모험을 하는 중이다.

그녀가 걷고 있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갈색 빛이 도는 도토리물이 든 순지를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그리고 인물과 모래바람의 거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입자 굵은 콘테와 색연필 사용하였다.



【작품11】 부화, 39x39cm, 장지에 혼합재료, 2018

【작품11】을 보면 망원경으로 관조적인 태도로 관찰하듯 동그란 원에 부화 중인 알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땐 따듯한 시선이 아닌 차갑고 냉담한 시선이라는 것을 원안의 색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자신 본연의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의 틀을 깨고선 새가 세상을 밖을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 알을 까고 나오듯 자신의 고유한 영혼을 지키고 마주하기 위해선 투쟁해야 한다. 표준화된 경계 안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편하게 살다가 본인의 개별성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하나의 ‘보통 인간’으로 묶어 버리려고 하는 압력을 이겨내야만 자아 주체성을 찾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Ⅲ. 결 론

예술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진정한 모습을 찾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주기도 한다. 예술적인 삶은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데 있다. 요즘은 SNS를 비롯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많다. 하지만 그것들은 소비적이고 나르시시즘 적이며 타인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인식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외부가 아닌 사유와 경험을 통한 내적 탐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에는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압박은 어마어마하다. 유년 시절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회적 압력과 타인과의 경쟁 구도나 일반적인 삶의 기대와 부응 속에서 살아온 대부분의 현대인은 주체적으로 진실한 개인의 내면적 이야기를 표출해내지 못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존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다. 그리고 개인이 군중 속에 묻혀들어 경계 안에서 안일해 하는 순간 정신과 몸이 다듬어지고 만다. 그래서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자신의 개별성과 주체성이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두려는 대상과 맞서 투쟁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본인이 가진 본연의 영혼과 육체를 지킬 수 있다.

본인의 이번 논문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 억눌러 변해버렸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현실을 살면서 예술적 정신과 가치를 작품을 창작할 때만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고 주관적 가치체계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황의 과정들을 본인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발산함으로써 본인이 잃어버린 고유한 모습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술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되새기며 이것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현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의 의미와 주체성과 개별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나 색감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였다. 인물 표현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인물의 행위에만 집중했다면 작품 속 인물의 표정과 감정에도 집중하여 섬세하면서 미묘한 표현을 하려고 하였다. 또한 선과 경계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작품의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작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본인의 모습이 무엇에 의해 어떻게 변하여 현재의 지금을 살고 있는지와 유년기 시절부터 예술을 배우면서 무엇을 깨닫고 얻었는지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본인 작품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시도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실험할 것이다. 또한 작품의 소재가 인물에 국한하지 않고 회화적 표현을 연구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박암종, 『디자인 생각』, 안그라픽스, 2008  
신혜경,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심귀연, 『신체와 자유』, 그린비출판사, 2012  
오종우, 『예술 수업』, 어크로스, 2015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사, 2015  
『타인의 추방』, 문학과지성사, 2017

### 번역서

- 리처드 노먼, 석기용 옮김, 『삶의 품격에 대하여』, 들베개, 2016  
막스 호르크하이머, 박구용 옮김, 『도구적 이성 비판』, 문예출판사, 2006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 책세상, 2018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삶의 격』, 은행나무, 2014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 ABSTRACT

## **The Research of Colloquial Expression on Contemporary People's Mind and Body**

- Centered on One's Own Pieces -

KIM, Su m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thesis above is consisted of the contents on the pieces that were produced from 2016 to 2018 through the Master's Degree exhibition 'BOUNDARY' which was presented in 2018. By thoroughly discussing the perception on contemporary people's mind and body, I examine the meaning that artistic life provides, the individual's individuality and life's independence. Also, I convey through the piece how losing one's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 influences an individual or artist, and this is systematically analyzed in my work research thesis.

In the modern society, humans lose the initiative of their lives and standardize and schematize their mind and body like a product following the standard of efficiency and rationality. By unifying the human's

existence within one standard, the individual's individuality and life's independence has been neglected. Consequently, contemporary people are losing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as they do not fully perceive their one identity.

I have perceived the existence of humans who cannot lead an independent life with their unique mind and body as tools or objects. And I have thought how the opinion or attitude of the humans who have become tools change as they deal with daily life. Also, since the body and mind are closely connected, I mentioned that if either one of them loses their independence, one's one perceptive or expressive process will vanish and therefore an issue occurs regarding human's freedom and existence.

By questioning if the human's mind and body exists either as one human being or an object in the modern world, this research examines the emotional and attitudinal change when an individual loses their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 and is controlled. Also, I have analyzed and wrote about the pieces that express my thoughts and emotions on the loss of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